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성경: 이사야 45장 15절-21절
(Tag:하나님,우상숭배배격,구원자,구약,이사야)

15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6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17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18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19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20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21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나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45:15-21)

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였지만, 사실은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 이 더 적절하다.

아버지와 아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것을 상상해 보자.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좋아한다.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 보이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깽깽놀이가 아이들에게

는 매우 신비스럽고 재미있는 놀이가 된다.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아이들은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어디엔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울지는 않는다.

그러나 철이 들 때 까지는 엄마가 자기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외로워한다.

더 많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부모는 점점 아이의 곁에 가까이 있지 않게 된다. 그러나 어렸을 때 했던 부모님의 말씀들이 아이 곁에 항상 머물게 된다.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지침이 된다.

아버지가 숨바꼭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에게 아버지는 숨어 계시며, 아버지를 찾아낼 때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되는가?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헤멘다.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분이시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커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즉 신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이지 않으시니 계시지도 않는가? 그래서 보이는 우상에게로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숨바꼭질의 경험이 부족한 자들이다. 아버지를 찾는 기쁨을 잘 모른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들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찾아 헤메기보다는 아예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헤메고, 마침내 찾아내는 기쁨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진정한 학습이란, 결코 잊혀지지 않은 공부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헤메고, 마침내는 답을 얻었을 때 이루어진다.

특히 개신교는 끊임없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 탐구하는 종교이다.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

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7:7)

반면에,

16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하였다.

즉,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무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와, 자기 해석에 사로잡히게 되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왜냐면 우상에게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구원을 주지 못하며,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17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은(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그들은 인생에 필요한 답만 얻는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까지 받는다.

물론 이스라엘도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는다. 왜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내어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18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 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찾을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거주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즉 이 우주의 물리적 법칙은 사람을 위해서 미세조정되어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탐구하여도 전혀 이해할 수 없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19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계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찾을 수 없도록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즉,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신다. 다만 우상숭배로 인해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에게는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결코 찾을 수 없는 분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혼돈 중에 찾아 헤메라고 하지 않으셨다. 정직하게 찾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오히려 욕심 중에 있거나, 죄 중에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중에 있거나, 자기 의에 싸여 있거나 하면 하나님을 찾기 힘들다. 오히려 정직하게 찾아 나서면 쉽다.

(브로커들에게 싸여 있으면 일은 꼬이게 마련.)

20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21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나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율법주의와 성령충만 말씀: 마태복음 12장 1-8절**

1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3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마12:1-8)

오직 율법주의를 이기는 것은 성령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1. 생명 중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한 이해; 사람이 굶고 있는데 먹여야 하지 않는가?

-안식일에 관한 장로들의 유전 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중심이다.

-심지어 성경에 기록된 규정 보다는 제사장의 사리판단이 중심이다.

2. 상위법 우선. (예수님 > 교리)

-성전보다 더 큰이가 누구인가? 예수님.

-성전의 제사 보다 더 큰 제사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단번에 드리는 제사. 제사를 완성하는 제사.

3. 우선적 가치

-제사 보다는 자비(베풀어야 할 자비가 있거든 제사보다 먼저하라)

-예물 보다는 화해(원망 들을만한 일이 생각 나거든 가서 화해하라)

-경건 보다는 참된 회개(겸손과 참된 회개가 모든 경건보다 우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

-사랑과 자비 > 정의 > 경건 > 교리(유전)

-경청 > 봉사

-가난한 연보 > 부자의 자랑하는 큰 연보